

원저

## 《黃帝內經》의 熱病 治療穴과 防風通聖散의 이론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정미경\* · 윤종화\* · 박현국\*\* · 김기욱\*\* · 장민기\* · 이승덕\* · 김갑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 Abstract

#### The Literature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Wushijiuyu*(五十九俞) and *Fangfengtongshengsan* (防風通聖散) for the Treatment of Fever Disease

Jung Mi-kyung\*, Yun Jong-hwa\*, Park Hyun-guk\*\*, Kim Gi-wook\*\*,  
Jang Min-gee\*, Lee Seung-deok\* and Kim Kap-sung\*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Backgrounds** : There have not been so many studies about the correlation of logical background between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Objectives** : This study was aimed to find out the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acupuncture points of *Wushijiuyu*(五十九俞) and *Fangfengtongshengsan*(防風通聖散) for the treatment of fever disease.

**Methods** : I investigated the background of rationale of *Wushijiuyu*(五十九俞) and *Fangfengtongshengsan*(防風通聖散) through survey of classical text include Yellow Emperor's Classic of Medicine(黃帝內經, Hwang Di Nei Jing), *Liujing*(類經), *Zhenjiujiayijing*(鍼灸甲乙經) and *Huangdisuwenxuanmingfanglun*(黃帝素問宣明方論).

**Results & Conclusions** : The words "*Wushijiuyu*(五十九俞) and *Wushijiuci*(五十九刺)" are founded in the Yellow Emperor's Classic of Medicine(黃帝內經) are either prescription of the acupuncture points for the treatment of fever disease. However, acupuncture points of two methods are not same. According to *Liujing*(類經), *Wushijiuyu*(五十九俞) have used acupuncture points located in head, upper and lower extremities, trunk, and back. However *Wushijiuci*(五十九刺) just select acupuncture points of head and

· 접수 : 2008. 7. 12. · 수정 : 2008. 9. 5. · 채택 : 2008. 10. 1.

· 교신저자 : 김갑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814번지 동국대학교 부속병원 한방병원

Tel. 031-961-9121 E-mail : Kapsung@unitel.co.kr

extremities without those of trunk and back. Acupuncture points located in yang meridian(45points) and Dumai(督脈, 5points) are significantly used more than those of yin meridian(8 points) and Renmai(任脈, 2points) in Wushijiuyu(五十九俞) and Wushijiuci(五十九刺). The distribution of acupuncture points used Wushijiuyu(五十九俞) have closer correlation with Fangfengtongshengsan(防風通聖散) than Wushijiuci(五十九刺) in the prescription.

**Key words** : HwangDiNeiJing(黃帝內經), shijiuyu(五十九俞), hijiuci(五十九刺), Fangfengtongshengsan(防風通聖散)

## I. 緒 論

한의학에서는 熱病에 대하여 《黃帝內經·素問》의 <熱論>, <刺熱論>, <評熱論>과 《黃帝內經·靈樞》의 <熱病篇>, <寒熱病篇> 및 <寒熱> 등에서 熱病의 原因, 主症, 轉變規律, 治療法 및 豫後와 禁忌 등을 개괄적으로 論하였고<sup>1)</sup>, 《難經》에서는 傷寒을 中風, 傷寒, 濕溫, 溫病 및 熱病으로 구분하였으며<sup>2)</sup>, 《傷寒論》에서 外感病의 六經辨證 체계와 藥物療法을 확립하였다<sup>3)</sup>.

熱病의 鍼刺法에 관하여 《黃帝內經·素問·氣穴論》에 “熱俞五十九穴”라는 記錄이 나타나고, <刺熱論>에서는 熱病이 發現되는 특징에 따라 五十九刺를 行하였으며<sup>4-5)</sup>, 《黃帝內經·靈樞·熱病》과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에는 각기 다른 “五十九刺”의 經穴 위치와 刺鍼의 效能이 기재되어 있다<sup>6-7)</sup>.

한편 金元時代에 寒涼學派의 대표적인 醫家인 劉完素는 火熱論을 주장하였는데<sup>8)</sup>, 그 理論의인 배경 역시 《黃帝內經》에 根源하였으며 六氣가 모두 火化한다는 것이 학술 중심 사상이고 그 治則으로 表裏雙解法을 創案하였다. 또한 外感의 風邪와 內部의 蘊熱로 인해 表裏가 모두 實한 証에 사용하기 위하여 解表, 清熱 및 攻下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防風通聖散을 創案하였다.

明代의 醫家인 吳崑은 《黃帝內經》의 基礎 위에 鍼灸와 藥物의 두 가지 治療法을 비교하여 《鍼方六集》<sup>9)</sup>에서 鍼에서 井·榮·輸·經·合을 取하거나 皮·脈·肉·筋·骨을 刺鍼하는 것과 藥物의 酸·苦·甘·辛·鹹에 따라 五臟의 疾病을 治療하는 기전이 同一하다는 ‘鍼藥同理’ 理論과 鍼灸와 方藥의 疾病 치료 기전이 同一하므로 臨床診療時에 疾病의 具體的

인 상황을 고려하여 鍼과 藥의 長短에 따라 鍼이 적절할 때는 鍼치료를, 藥이 적절할 때는 藥치료를, 鍼과 藥의 配合이 적절할 때는 鍼과 藥을 겸해서 시술해야 한다는 鍼藥兼施의 理論을 주장하였다.

吳崑은 《鍼方六集·旁通集》에서 劉完素가 火熱을 治療하는 데 사용한 防風通聖散은 《黃帝內經》의 熱病의 治療에 사용하였던 五十九刺法과 비견할 만하다고 하여 防風通聖散과 熱病五十九刺와의 兼用治療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up>9-10)</sup>. 하지만 현재까지 임상에서 熱病의 治療에 있어서 藥物治療와 鍼治療가 동시에 行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 治療機轉의 이론적 동질성의 糾明없이 시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論者は 火熱病의 治療時 한번의 辨證에 의해 鍼과 藥을 동시에 사용하는 타당한 根據를 입증하기 위하여 《黃帝內經》에서 제시된 熱病의 治療穴位인 《黃帝內經·靈樞·熱病》 五十九刺와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의 五十九俞의 經穴 위치, 主治 效能과 熱病의 治療에 대표적 處方인 防風通聖散의 藥物조성, 主治, 效能 등을 비교하여 藥物治療와 鍼治療의 이론적 相應 關係를 調査 研究한 바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鍼方六集·旁通集·明熱俞五十九穴二十六》<sup>9)</sup>

[原文] 劉完素<sup>a)</sup>用藥, 以火熱立論, 其主通聖散<sup>b)</sup>一方, 以治風熱, 甚爲周匝<sup>c)</sup>無間

[註釋] a) 劉完素: 字는 守眞이고 自號는 通玄處士

이다. 河澗(지금의 河北省 河澗縣) 사람이기 때문에 劉河澗이라고도 한다.

b) 通聖散 : 防風通聖散을 지칭하며, 防風, 蓮翹, 麻黃, 薄荷, 荊芥, 白朮, 梔子, 川芎, 當歸, 白芍藥, 大黃, 芒硝, 石膏, 黃芩, 桔梗, 滑石, 甘草 등의 藥物로 組成되어 있다.

c) 周匝 : “두루 돈다” 또는 “周密하다”는 뜻이다.

[解釋] 劉完素의 用藥은 火熱로 理論을 세워 주로 防風通聖散으로 風熱을 治療하니 심히 주도면밀하다.

[原文] 方內用防風, 麻黃以解表, 風熱之在皮膚者, 得之由汗而泄. 用荊芥, 薄荷以清上, 風熱之在巔頂者, 得之由鼻而泄. 大黃, 芒硝通利藥也, 風熱之在腸胃者, 得之由後而泄. 滑石, 梔子水道藥也, 風熱之在決瀆<sup>a)</sup>者, 得之由溺而泄. 熱淫于膈, 肺胃受邪, 石膏, 桔梗, 清肺胃也; 而連翹, 黃芩, 又所以却諸經之游火, 熱傷于血, 陰臟失榮, 川芎, 當歸, 芍藥, 益陰血也; 而甘草, 白朮之所以和胃氣而調中.

[註釋] a) 決瀆 : 三焦를 말하며, 水道를 疏通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름하였다. 《黃帝內經·素問·靈蘭秘典論》에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三焦는 決瀆之官으로 水道가 出한다)”이라 하였다.

[解釋] 防風通聖散의 藥物구성은 防風, 麻黃으로써 解表하며 風熱이 皮膚에 있는 사람은 發汗으로써 泄한다. 荊芥·薄荷로써 清上하며 風熱의 巔頂에 있으면 鼻로 泄出한다. 大黃·芒硝는 通利하는 藥이며 風熱이 腸胃에 있으면 便을 通하여 泄한다. 滑石·梔子는 水道의 藥이며 風熱이 決瀆之官인 三焦에 있으면 小便으로 泄한다. 熱邪가 膈에 있어 肺胃가 受邪하면 石膏·桔梗으로 肺胃를 清한다. 連翹·黃連은 또 諸經의 游火를 물리치고, 熱로 血이 傷하여 陰臟이 營養을 잃으면 川芎·當歸·芍藥으로 陰血을 益한다. 甘草·白朮은 胃氣를 和하고 調中한다.

[原文] 人知劉守眞<sup>a)</sup>長于治熱如此, 而不知其得之《素問》熱病五十九刺者深也

[註釋] a) 劉守眞 : 劉完素를 말한다.

[解釋] 사람들은 劉守眞이 이와 같이 熱病에 長點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가 《黃帝內經·素問》 “熱病五十九刺”에서 깊이 心得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原文] 《刺熱論》<sup>a)</sup>曰: “頭上五行行五者, 以越諸陽之熱逆也; 大杼, 膺俞, 缺盆, 風門, 此八者以瀉胸中之熱也. 氣衝, 三里, 巨虛上下廉, 此八者以瀉胃中之熱也.

雲門, 髃骨<sup>b)</sup>, 委中, 髓空<sup>c)</sup>, 此八者以瀉四肢之熱也. 五臟俞傍五, 此十者以瀉五臟之熱也. 凡此五十九穴者, 皆熱之左右也.” 上古刺熱病之方, 如此周悉.

[註釋] a) 《黃帝內經·素問·刺熱論》의 문장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의 문장임

b) 髃(어깨앞쪽뼈 우) 骨 : 肩髃穴의 別名이다.

c) 髓空 : 《鍼灸甲乙經》, 《外臺秘要》에는 “髓孔”이라 하였고, 楊上善은 腰膂라 하였고, 張志聰은 橫骨이라 하였는데 腰膂라하면 “此八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張志聰의 主를 따른다.

[解釋] 《黃帝內經·素問·刺熱論》에서 “頭上에 五行이 있고 각 行에 五穴씩 있는 것은 諸陽의 熱邪가 逆한 것을 疏泄한다. 大杼, 膺俞, 缺盆, 風門 8穴은 胸中の 熱을 瀉한다. 氣衝, 三里, 上巨虛, 下巨虛 8穴은 胃中の 熱을 瀉한다. 雲門, 髃骨(肩髃), 委中, 髓空(橫骨, 腰俞穴) 8穴은 四肢의 熱을 瀉한다.

[原文] 劉守眞立通聖散一方, 實與五十九刺爭美

[解釋] 劉完素가 만든 通聖散은 사실 五十九刺法과 서로 맞수가 될 만큼 잘 된 處方이다.

[原文] 無亦私淑<sup>a)</sup>其旨而得之深乎! 不然, 何若符節之相契<sup>b)</sup>也.

[註釋] a) 私淑 : 다른 이의 학문을 敬畏하고 그를 스승으로 삼아 수업을 하는 것. 《孟子·離婁下》에 “予未得爲孔子徒也, 予私淑諸人也(내가 孔子의 道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일 때 여러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학문을 들어 배웠다)” 하였다.

b) 相契 : 서로 부합한다, 또는 서로 일치한다는 뜻이다.

[解釋] 그 요지를 스승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체득한 것이 깊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신포처럼 서로 맞아 떨어지겠는가?

## 2. 《黃帝內經》의 五十九俞(五十九穴), 五十九瘡 및 五十九刺의 기록

### 1) 《黃帝內經》에 나타난 五十九俞(五十九穴)의 기록

(1) 《黃帝內經·素問·氣穴論篇》<sup>5)</sup>

[原文] “藏俞五十穴, 府俞七十二穴, 熱俞五十九穴,

水俞五十七穴, 頭上五行行五, 五五二十五穴, 中兩傍各五, 凡十穴, 大椎上兩傍各一, 凡二穴, 目瞳子浮白二穴, 兩髀厭分中二穴, 犢鼻二穴, 耳中多所聞二穴, 眉本二穴, 完骨二穴, 頂中央一穴, 枕骨二穴, 上關二穴, 大迎二穴, 下關二穴, 天柱二穴, 巨虛上下廉四穴, 曲牙二穴, 天突一穴, 天府二穴, 天牖二穴, 扶突二穴, 天窗二穴, 肩解二穴, 關元一穴, 委陽二穴, 肩貞二穴, 瘡門一穴, 齊一穴, 胸俞十二穴, 背俞二穴, 膺俞十二穴, 分肉二穴, 蹠上橫二穴, 陰陽蹠四穴, 水俞在諸分, 熱俞在氣穴, 寒熱俞在兩髀厭中二穴, 大禁二十五, 在天府下五寸, 凡三百六十五穴, 鍼之所由行也.”

[解釋] “五臟의 腧穴은 50穴이고 六腑의 腧穴은 72穴이며 熱病을 치료하는 腧穴은 59穴이고, 水病을 치료하는 腧穴은 57穴입니다. 머리에는 다섯 줄이 있어 각 줄마다 5穴이 있으므로 五五 25穴입니다.

水病을 치료하는 腧穴은 각 經脈의 分肉 사이에 있고, 熱病을 治療하는 腧穴은 氣穴에 있으며 寒熱病을 治療하는 輸穴은 膝下 외측의 骨厭속(陽關穴)에 左右 2穴이 있고 25회 이상 刺鍼하는 것을 禁해야 할 곳은 天府穴 아래 5寸되는 곳에 있다. 이상 모두 합쳐 365穴인데 鍼을 놓는 部位이다.

(2)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sup>5)</sup>

[原文] “帝曰：夫子言治熱病五十九俞，餘論其意，未能領別其處，願聞其處，因聞其意。岐伯曰：頭上五行行五者，以越諸陽之熱逆也；大杼，膺俞，缺盆，背俞，此八者，以寫胸中之熱也；氣街，三裏，巨虛上下廉，此八者，以寫胃中之熱也；雲門，髃骨，委中，髓空，此八者，以寫四支之熱也；五藏俞傍五，此十者，以寫五藏之熱也。凡此五十九穴者，皆熱之左右也。”

[解釋] “황제：선생께서는 熱病을 治療하는 59개의 腧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意味는 論할 수 있지만 그 部位를 파악하여 辨別할 수 없으니 그것의 部位에 대해 듣고 싶으며 그 意味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岐伯：頭上에 五行이 있고 각 行에 五穴씩 있는 것은 諸陽의 熱邪가 逆한 것을 疏泄합니다. 大杼, 膺俞, 缺盆, 風門 8穴은 胸中の 熱을 瀉합니다. 氣街, 三里, 上巨虛, 下巨虛 8穴은 胃中の 熱을 瀉합니다. 雲門, 髃骨(肩髃), 委中, 髓空(橫骨, 腰俞穴) 8穴은 四肢의 熱을 瀉합니다.

五臟俞의 兩側傍 五穴(魄戶, 神堂, 魂門, 意舍, 志室) 총 10穴은 五臟의 熱을 瀉한다. 무릇 이 五十九穴은 모두 熱을 左右한다”고 하였다.

2) 《黃帝內經》에 나타난 五十九瘡의 기록

(1) 《黃帝內經·靈樞·四時氣》<sup>5)</sup>

[原文] “溫瘡汗不出, 爲五十九瘡.”

3) 《黃帝內經》에 나타난 五十九刺의 기록

(1) 《黃帝內經·素問·刺熱篇》<sup>5)</sup>

[原文] “熱病先胸脅痛, 手足躁, 刺足少陽, 補足太陰, 病甚者爲五十九刺.”

“熱病先身重骨痛, 耳聾好瞑, 刺足少陰, 病甚爲五十九刺.”

[解釋] 熱病에 먼저 胸脇痛이 있고 手足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움직이면 足少陽經에 鍼을 놓고, 足太陰經을 補하며 甚하면 59刺法을 사용한다.

熱病을 앓을 때 먼저 몸이 무겁고 팔다리가 쭈서며, 귀가 들리지 않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足少陰經에 鍼을 놓으며 病이 甚할 때는 五十九刺法을 사용한다.

(2) 《黃帝內經·素問·刺瘡篇》<sup>5)</sup>

[原文] “瘡不渴, 間日而作, 刺足太陽; 渴而間日作, 刺足少陽; 溫瘡汗不出, 爲五十九刺.”

[解釋] 瘡疾에 갈증이 나지 않고 하루걸러 發作하면 足太陽經에 刺鍼하며, 갈증이 나면서 하루걸러 發作하면 足少陽經에 刺鍼합니다. 溫瘡에 땀이 나지 않으면 五十九刺法을 사용합니다.

(3) 《黃帝內經·靈樞·熱病》<sup>5)</sup>

[原文] “熱病三日, 而氣口靜, 人迎躁者, 取之諸陽, 五十九刺, 以瀉其熱而出其汗, 實其陰以補其不足者.”

“熱病先膚痛, 窒鼻充面, 取之皮, 以第一鍼, 五十九, 苛轉鼻, 索皮於肺, 不得索之火, 火者心也.”

“熱病先身澀, 倚而熱, 煩說, 幹唇口監, 取之皮, 以第一鍼, 五十九, 膚脹口幹, 寒汗出, 索脈於心, 不得索之水, 水者腎也.”

“熱病隘乾多飲, 善驚, 臥不能起, 取之膚肉, 以第六鍼, 五十九, 目青, 索肉於脾, 不得索之木, 木者肝也”

“熱病身重骨痛, 耳聾而好瞑, 取之骨, 以第四鍼, 五十九刺, 骨病不食, 啮齒耳青, 索骨於腎, 不得索之土, 土者脾也”

“所謂五十九刺者, 兩手外內側各三, 凡十二瘡; 五指間各一, 凡八瘡, 足亦如是; 頭入發一寸傍三分各三, 凡六瘡; 更入發三寸邊五, 凡十瘡; 耳前後口下者各一, 項中一, 凡六瘡; 巔上一, 顛會一, 髮際一, 廉泉一, 風池二, 天柱二.”

[解釋] “熱病이 발생한 지 3日이 되어 寸口脈은 안정되어 있으나 人迎脈이 躁動하면 각 陽經의 59개 穴

에 鍼을 놓되 表에 있는 熱邪는 瀉하여 攄으로 배출시키고 陰經을 實하게 하여 부족한 氣를 補해야 한다.”

“熱病에 먼저 皮膚痛症, 鼻塞, 面浮腫이 나타나면 皮膚에 鍼을 놓는데, (九鍼 中) 第一鍼을 사용하며 59穴에 놓아야 한다. 만약 코에 小疹이 발생하면 이는 皮膚의 病이므로 肺의 腧穴에 鍼을 놓되 心의 腧穴에 놓아서 안 된다. 왜냐하면 火가 心에 속하기 때문이다.”

“熱病에 먼저 몸이 상쾌하지 않고 四肢無力하면서 發熱, 煩悶, 唇咽喉乾燥하면 그 血脈에 鍼을 놓되 第一鍼을 사용하여 59穴에 놓아야 한다. 腹部脹滿, 口乾하고 冷汗이 나면 心이 주관하는 血脈에 鍼을 놓되 腎의 腧穴에 놓아서 안 된다. 왜냐하면 水는 腎에 속하므로...”

“熱病에 咽喉가 乾燥하여 多飲하고, 잘 놀라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分肉에 鍼을 놓되 第六鍼인 圓利鍼을 사용하여 59穴에 놓는다. 眼角이 青色이면 脾가 주관하는 肌肉에 鍼을 놓되 肝의 腧穴에 놓아서 안 된다. 木은 肝에 속하기 때문이다.”

“熱病에 몸이 무겁고 骨節痛, 耳聾, 嗜睡가 나타나면 그 骨에 鍼을 놓되 第四鍼인 鋒鍼을 사용하여 59穴에 놓는다. 骨病으로 못 먹고, 이를 갈며, 귀가 青色이면 腎이 주관하는 骨에 鍼을 놓되 脾의 腧穴에 놓아서 안 된다. 脾는 土에 속하기 때문이다.”

“所謂 59刺는 兩手 內外側에 각 3穴(少澤, 關衝, 商陽, 少商, 中衝 및 少衝)이 있어 좌우 합하면 12穴이고, 五指間에 각 1穴(後溪, 中渚, 三間 및 少府)이 있어 모두 8혈, 발가락(束骨, 足臨泣, 陷谷, 太白)도 이와 같다. 頭部 前髮際 1寸 部位에 각 3穴(五處, 承光, 通天)이 있어 좌우 합하면 6穴이고, 다시 髮際로 3寸쯤 들어가면 양쪽(頭臨泣, 目窗, 正營, 承靈, 腦空)에 각기 5穴이 있어 모두 10穴이며, 귀 앞뒤쪽에 각 1穴(聽會, 完骨), 입 아래쪽에 1穴(承漿), 項中(啞門)에 1穴 합해서 6穴이다. 巔頂部(百會)에 1穴, 囟會 1穴, 前髮際 後髮際(神庭, 風府)에 각 1穴, 廉泉 1穴, 風池 2穴, 天柱 2穴이다.

### 3. 《黃帝內經·靈樞·熱病》의 五十九刺와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의 五十九俞의 분석

#### 1) 《黃帝內經·靈樞·熱病》의 五十九刺에 대한 《類經》<sup>11)</sup>의 註釋

[原文] 所謂五十九刺者, 兩手外內側各三凡十二痛

[註釋] 此下詳明五十九刺之穴也, 兩手外內側即太陽之少澤, 少陽之關衝, 陽明之商陽也, 三陰俱在內側, 即太陰之少商厥陰之中衝, 少陰之少衝也, 左右共十二穴, 痛刺瘡也, 有刺必有癢, 故即以瘡爲數, ○, 委偉二音.

[解釋] 所謂 59刺는 양팔의 內外側 각각의 三穴로 무릇 12穴이니, 이하 59刺에 대한 설명으로 양팔의 內外側이란, 즉 手太陽經의 少澤, 手少陽經의 關衝, 手陽明經의 商陽이고, 三陰經은 모두 內側에 있어 手太陰經의 少商, 手厥陰經의 中衝, 手少陰經의 少衝으로 左右 모두 12穴이다. 瘡는 찢러 상처를 내는 것이고 刺는 반드시 흉이 있어야 하는바, 瘡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委와 偉, 두 가지 음이 있다.

[原文] 五指間各一凡八痛 足亦如是

[註釋] 五指間者總言手五指也, 各一者, 本節之後各一穴也, 觀上文第十五節云, 取之於其腧及下諸指間, 正謂此也, 蓋諸經腧穴, 皆在指之本節後, 如手經則太陽之後溪, 少陽之中渚, 陽明之三間獨少陰之在本節後者, 則少府之榮也, 手之六經, 惟太陰厥陰則本節後俱无穴, 故左右四經, 凡八痛也, 其在足經之腧, 則太陽曰束骨, 少陽曰臨泣, 陽明日陷谷, 太陰曰太白, 皆在本節之後, 其少陰之脈不行於指, 厥陰之脈則本節後亦無穴左右四經 止共八穴, 故曰足亦如是.

[解釋] 五指間은 대체로 手五指를 말하며 各 一은 本節之後 各 一穴이니 위의 15節의 文에서 말하길 腧穴에서 아래로 손가락 사이에 이르러 取하라 했으니 바로 말하면 이것이다. 대개 經絡의 腧穴은 指의 本節之後에 있으니 手太陽經의 後溪, 手陽明經의 三間이고, 다만 手少陰經의 本節後에 있는 것은 榮穴인 少府이다.

手의 六經 中에서 다만 太陰經과 厥陰經은 本節後에 穴이 없으므로 左右 四經의 八穴이다. 足經의 腧는 太陽經의 束骨, 少陽經의 臨泣, 陽明經의 合谷이요, 太陰經의 太白이니 모두 本節後에 있다. 足少陰經은 발가락으로 행하지 않으며 足厥陰經도 本節後에 穴이 없어 모두 八穴에 그쳐 足도 역시 이와 같다.

[原文] 頭入發一寸傍三分各三, 凡六痛.

[註釋] 頭入發一寸, 即督脈上星之次其傍穴分而爲三, 則足太陽之五處, 承光, 通天也, 左右各三, 故凡六痛.

[解釋] 頭入髮 一寸은 督脈의 上星을 가리키고, 其傍 三分의 三穴은 足太陽經의 五處, 承光, 通天으로 左右 三穴로 六穴이다.

[原文] 更入發三寸邊五凡十疔.

[註釋] 更入發者, 自上星之次向後也, 三寸邊五者, 去中行三寸許兩邊各五也, 卽足少陽之臨泣, 目窗, 正營, 承靈, 腦空左右二行凡十疔.

[解釋] 更入髮者是 上星으로부터 뒤쪽이며, 三寸邊五者는 中行(督脈)에서 三寸쯤 떨어져 양옆으로 各五穴이니 足少陽經의 臨泣, 目窗, 正營, 承營, 腦空으로 左右 二行으로 十穴이다.

[原文] 耳前後口下者各一, 項中一凡六疔.

[註釋] 耳前者聽會也, 耳後者完骨也, 俱足少陽經穴, 各二, 口下者, 任脈之承漿也, 一穴, 項中者, 督脈之瘻門也, 一穴, 共凡六疔.

[解釋] 耳前者는 聽會, 耳後者는 完骨로 모두 足少陽經穴로 各 二穴이고, 口下者는 任脈의 承漿穴로 一穴이요, 項中者는 督脈의 瘻門으로 一穴, 모두 六穴이다.

[原文] 巔上一.

[註釋] 百會也, 督脈穴.

[原文] 顛會一.

[註釋] 督脈穴.

[原文] 髮際一.

[註釋] 前發際, 神庭也, 後發際風府也, 俱督脈穴, 凡二疔.

[原文] 廉泉一.

[註釋] 任脈穴.

[原文] 風池二, 天柱二.

[註釋] 風池, 足少陽經穴, 天柱, 足太陽經穴

[註釋] 按本篇所載者熱五十九俞也, 前篇水熱穴論所載者 亦熱病五十九俞也 考二篇之異同, 則惟百會顛會五處承光通天臨泣目窗正營承靈腦空等十八穴相合, 其餘皆異, 然觀本篇所言者, 多在四肢蓋以寫熱之本也, 水熱穴論所言者多隨邪之所在, 蓋以寫熱標也, 義自不同, 各有取用, 且本經靈樞在前, 素問在後, 後者所以補前之略之耳, 故皆謂之熱病五十九俞, 非謬異也, 今總計二篇之數, 再加以上文所言胃脘涌泉等穴, 原不在五十九數之內者, 凡十四穴, 仍除去重複十八穴, 則總得一百一十四穴, 皆熱俞也, 均不可廢, 凡刺熱者, 當總求二篇之義, 各隨其宜而取用之, 庶乎盡刺熱之善矣.

[解釋] 本編에 記載된 것도 熱病五十九俞요 前編

水熱穴論에 記載된 것도 역시 熱病五十九俞로 두 編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고찰하니 百會, 顛會, 五處, 承光, 通天, 臨泣, 目窗, 正營, 承靈, 腦空 등 十八穴은 相合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르다. 그러나 관찰컨대 本編에서 언급된 것은 모두 四肢에 있어 대개 熱의 本을 瀉하며, 《水熱穴論》에 언급된 것은 邪氣가 있는 곳에 있어 熱의 標를 瀉하니 意味는 다르나 각각의 쓰임새는 있다. 또 本編 《黃帝內經·靈樞》엔 在前하고 《黃帝內經·素問》엔 在後하니 後者는 前者를 약간 보충한 것이므로 모두 熱病五十九俞를 말한 것으로 다르거나 틀리지 않다.

두 編의 穴數를 합계내고 위 文에서 말한 胃脘(겨드랑이) 湧泉 등 원래는 五十九俞 內에 들지 않는 十四穴을 더하고, 重複된 十八穴을 빼면 총 一百一十四穴이니 모두 熱俞로서 쓸모없지 않다. 무릇 刺熱함에 있어 마땅히 두 篇의 意味를 모두 求하여 마땅한 것을 따라 取用해야 刺熱에 최선을 다했다 할 것이다.

## 2)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sup>5)</sup>의 熱病五十九俞에 대한 王冰의 註釋

[原文] 帝曰：夫子言治熱病五十九俞，…… 岐伯曰：頭上五行行五者，以越諸陽之熱逆也<sup>①</sup>；大杼，膺俞，缺盆，背俞，此八者，以瀉胸中之熱也<sup>②</sup>；氣街，三里，巨虛，上下廉，此八者，以瀉胃中之熱也<sup>③</sup>；雲門，髃骨，委中，髓空，此八者，以瀉四支之熱也<sup>④</sup>；五臟俞傍五，此十者，以瀉五臟之熱也。凡此五十九穴者，皆熱之左右也<sup>⑤</sup>。

[註釋] ① 頭上五行行五者，以越諸陽之熱逆也

王冰의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에서는 “頭上五行者, 當中行謂上星, 總會, 前頂, 百會, 後頂, 次兩旁謂五處, 承光, 通天, 絡却, 玉枕, 又次兩旁謂臨泣, 目窗, 正營, 承靈, 腦空也”라 하였다<sup>13)</sup>.

頭部 정중앙의 督脈 5穴, 督脈 좌우에 足太陽經이 10穴, 足太陽經 左右에 足少陽經이 10穴로 頭頂 3개의 經絡 위에 25穴이 있다<sup>14)</sup>. 足三陽經은 頭에서 足으로 순행한다. 表部의 熱로 인하여 三陽經의 表가 닫히고 經氣가 鬱滯되어 頭部가 發熱하고<sup>7)</sup>, 手足六陽經의 熱이 頭巔上으로 厥逆하는 증상에 刺鍼하여 邪熱을 泄越시킨다. 즉 머리 위의 25俞는 諸陽의 熱氣가 위로 逆하는 것을 散泄시킬 수 있다<sup>5,15)</sup>.

上星은 《醫經理解·穴名解》에서 “穴如星之居上也”라 하였다.

顛會는 《醫心方》 권 2에서 “一名天窗”이라 하였는데, 頸部에 天窗穴이 있어 잘못된 것 같다. 顛은 또

한 凶이라 하는데, 《說文解字·凶部》에서 “凶, 頭會腦蓋也. 象形”이라 하였고, 段玉裁의 注에서는 “《內則》正義에서 이를 인용하여 ‘凶은 글자 모양이 소아의 뇌가 닫히지 않는 모양이다’고 하였다. 人部의 兒 아래에서도 ‘兒를 따르고 위로 소아의 두뇌가 닫히지 않는 모양이다’고 하였다.” 《經穴解·督脈》에는 “顛會는 顛門으로 督脈과 만나기 때문에 顛會라 한다”고 하였다.

前頂은 이 穴이 정수리 앞에 해당되기 때문에 前頂이라 한다.

百會는 頭에 모든 陽이 만나고 督脈 또한 諸陽의 總督이고 諸陽을 통괄한다. 이 穴은 정수리 중앙에 있고 督脈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百會라 한다. 百은 많다(多)는 뜻이다. 《金匱玉函經》 권 1에 “頭는 몸의 元首이고 人神이 흐르는 곳이며 氣血·精明과 365絡이 모두 머리로 돌아간다. 머리는 諸陽이 모이는 곳이다”고 하였다. 後頂은 정수리 뒤에 있어 後頂이라 한다<sup>12)</sup>.

五處는 《經穴解·膀胱經》에서 “이 穴 뒤에 4穴이 있고 이 穴과 함께 5穴이 된다. 모두 1寸 5分 떨어져 직행하고 天柱에 이르러서 목덜미 後髮際를 끼고 大筋 바깥쪽 끼친 곳에 이른다. 머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五處라 한다”고 하였다. 《會元鍼灸學》에서는 “五處는 足太陽經으로 精明, 攢竹, 眉衝, 曲差에서 시작하여 여기에 이르기까지 다섯 穴로 모두 曝赤한 熱을 흠어지게 하기 때문에 五處라 한다”고 하였다. 足太陽經이 頭面部에 있어서 睛明에서 玉枕에 이르기까지 모두 9穴이고 이 穴이 마침 그 中間에 있어 앞으로 睛明에서 차례로 여기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째 穴이고, 뒤로 玉枕穴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역시 다섯 번째 穴이기 때문에 五處라 이름하였다.

承光是 《醫經理解·穴名解》에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 天光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고 하였다. 承은 아래에서 위를 받드는 것이다. 《說文解字·手部》에서 “承, 奉也”라 하였다. 光은 陽光이다. 頭는 諸陽이 모이고 정수리는 지고한 자리이다. 이 穴은 정수리 양쪽에 있어 陽光을 받들기 때문에 承光이라 한다.

通天穴에서 天의 본래 뜻은 사람을 본뜬 것으로 頭部는 특히 커서 정수리(顛)를 가리킨다. 《說文解字·一部》에서 “天, 顛也”라 하였고, 段玉裁 注에서 “顛者, 人之頂也”라 하였다. 이 穴은 顛頂 양쪽에 위치하여 顛에 직통하기 때문에 通天이라 한다.

絡卻의 卻은 《玉篇·卩部》에서 “卻, 去略切, 又居略切. 節卻也. …… 俗作卻”이라 하였고, 《廣韻·栢韻》에서 “卻, 退也”라 하였다. 頭部에 있는 足太陽經의

穴을 살펴보면 앞은 睛明, 攢竹에서 直上하여 정수리의 通天에 이르고 絡却이 있는 곳은 退行하여 下行하기 때문에 이것이 絡却이라 이름 붙였다. 또한 이것의 別名인 ‘一名反行’이라 한 것에 의거하면 이 앞의 諸穴은 모두 上行하고 이는 도리어 下行한다는 뜻이 되어 역시 證明할 수 있다.

玉枕은 枕骨로 玉枕骨이라 稱한다. 頭部의 베개를 베는 부위이기 때문에 枕骨이라 한다. 玉은 美를 비유한 말이다<sup>12)</sup>.

足少陽經의 臨泣은 《醫經理解·穴名解》에서 “目は 눈물이 나오는 곳으로 穴이 그 위에 임하기 때문에 이름하였다”고 하였다.

目窗은 《經穴解·膽經》에서 “穴名이 目窗인 것은 이 穴이 바로 눈 위에 있고 이에 刺鍼하면 눈이 밝아지는 것이 마치 눈에 窗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目窗이라 한다”고 하였다. 《醫經理解·穴名解》에서 “目窗은 臨泣 위쪽 1寸에 있고 目氣가 通하는 곳이다”라 하였다.

正營은 《經穴解·膽經》에서 “臨泣과 太陽經의 五處穴, 督脈의 上星穴이 가로로 직선을 이루고, 目窗과 太陽經의 承光穴, 督脈의 顛會穴이 가로로 직선을 이루고, 正營穴과 太陽經의 通天穴, 督脈의 前頂穴이 가로로 직선을 이루어 바로 頭頂에 치우쳐 있어 正營이라 한다”고 하였다. 營에는 東西의 가로로 엮는다는 뜻이 있다. 《醫經理解·穴名解》에 “正營은 目窗 위 1寸에 있고 바로 정수리 위로 氣가 營結된 것이다”라 하였다.

承靈은 《醫經理解·穴名解》에서 “높이 있어 天의 靈을 받든다는 말이다”라 하였다. 《莊子·德充符》에서 “不可入於靈府”라 하였는데, 郭象의 注에서 “靈府者, 精神之宅也”라 하였다. 頭는 神이 居處하는 곳으로 역시 靈府이다. 이 穴은 神靈한 氣를 받들기 때문에 承靈이라 이름하였다.

腦空의 空은 孔이다. 이 穴은 腦와 통하는 구멍이기 때문에 腦空이라 이름하였다<sup>12)</sup>.

② 大杼, 膺俞, 缺盆, 背俞, 此八者, 以瀉胸中之熱也  
王冰의 註에서는 大杼는 목덜미 第1椎 아래 同身寸으로 양쪽 1寸 半 떨어진 곳에 있고, 膺俞의 別絡과 手足太陽經의 세 脈氣가 모이는 곳이다.

膺俞는 가슴 가운데에 있는 腧穴로 正名은 中府이다. 胸中の 양쪽으로 행하고 同身寸으로 서로 6寸 떨어져 있고 雲門 아래 1寸 部位로 乳上 제3 肋間의 動脈이 손에 感觸되는 陷沒된 곳으로 반듯하게 누워 取

穴한다. 手足의 太陰脈이 만나는 곳이다.

缺盆은 어깨 위쪽 橫骨에 함몰된 中央에 있고 手陽明經의 脈氣가 所發한다.

背俞는 風門으로 일명 熱府라 하며 第2椎 아래 양쪽으로 1寸 5分 떨어져 있고 督脈과 足太陽이 만난다. 《中誥孔穴圖經》에는 이름이 없지만 風門 일명 熱府라 하여 治熱하는 背俞이다<sup>16)</sup>.

大杼, 膺俞(中府), 缺盆, 背俞(風門)는 胸 및 背部에 있어 胸中의 邪熱을 瀉한다<sup>14)</sup>.

大杼는 《醫經理解·穴名解》에서 “大杼는 목덜미 뒤쪽 第1椎下 脊柱 中央에서 양쪽으로 각기 2寸 떨어져 있다. <海論>에서 ‘衝脈者, 其輪上出於大杼’라 하였고, <氣穴論>의 註에서 ‘督脈別絡, 手足太陽三脈之會’라 하였다. 따라서 經脈의 큰 베틀(機杼)이다”라 하였다. 中府는《明堂》 권 1의 註에서 “府는 모이는(聚) 것으로 脾肺의 氣가 이 穴에서 모이기 때문에 中府라 命名한다”고 하였다.

缺盆은 穴이 있는 곳이 마치 그릇처럼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缺盆이라 이름하였다. 風門은 《經穴解·膀胱經》에서 “天의 邪風은 대부분 위쪽과 사람의 背部에 侵入하고 특히 風이 中하기 쉬운 곳에는 반드시 竅가 있어 불려들이고 따라서 督脈의 가운데로 行하여 風府라 한다. 목덜미 바깥쪽은 足少陽經으로 風池라 한다. 이 經이 背部에 있고 또한 風門이 있어 마치 門을 熱이 風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風이 가장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風門이라 한다”고 하였다<sup>12)</sup>.

③ 氣街, 三里, 巨虛上下廉, 此八者, 以瀉胃中之熱也

王冰의 註에서 氣街는 腹部 배꼽 아래 橫骨의 兩端에 있고 鼠蹊部 위쪽 同身寸으로 1寸되는 部位에 脈動이 手に 應하는 곳이다. 足陽明經의 脈氣가 所發한다.

三里는 膝下 3寸 脛骨 바깥쪽 두 筋肉 사이에 있고 足陽明經의 脈氣가 所發한다.

巨虛上廉은 足陽明과 大腸이 下合하는 곳이며 三里 아래 3寸 部位로 足陽明經 脈氣가 所發한다. 巨虛下廉은 足陽明과 小腸이 下合하는 곳이며 上廉 아래 3寸에 위치하고 足陽明의 脈氣가 所發한다<sup>16)</sup>.

氣街는 《鍼灸甲乙經》에는 “氣衝”으로 되어 있다. 衝과 街는 뜻이 같다. 《說文解字·行部》에 “街, 四通道也. …… 衝, 通道也”라 하였고, 段玉裁의 註에서 “今作衝”이라 하였다. 또한 “腹氣有街 …… 氣在腹者, 上之於背膂, 與衝脈於膂左右之動脈者”라 하여 이 穴이 바로 氣街의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氣衝이라 命名한다.

三里는 《素問·鍼解篇》에서 “所謂三里者, 下膝三寸也”라 하였고 王冰의 註에는 “三里, 穴名, 正在膝下三寸”이라 하였다. 리는 寸이고 穴이 무릎 아래 3寸에 있기 때문에 三里라 命名한다.

巨虛上廉은 穴이 脛骨 바깥 위아래로 부드러운 구유처럼 큰 터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巨虛上廉이라 한다. 巨虛下廉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巨虛下廉이라 한다<sup>12)</sup>.

④ 雲門, 髃骨, 委中, 髓空, 此八者, 以瀉四支之熱也

王冰의 註에서 雲門은 巨骨 아래에 있고 가슴 양쪽으로 서로 6寸 떨어져 行하며 脈이 動하는 것이 手に 應하고 手太陰의 脈氣가 所發한다.

《中誥孔穴圖經》에는 髃骨이 없고 肩髃穴이 있다. 이 穴은 어깨 끝 두 骨 사이에 있고 手陽明과 蹻脈이 만난다.

委中은 무릎 뒤 오금 中央 脈動處에 있고 足太陽脈이 들어가는 곳이다.

腰俞는 脊柱 中央 第21椎 아래에 있고 汗不出, 足清不仁을 主治하며 督脈의 氣가 所發한다<sup>16)</sup>. 髓空을 腰脛로 보면 7穴이고, 橫骨로 볼 때 8穴이 된다<sup>6)</sup>.

左右의 雲門, 髃骨(肩髃), 委中, 髓空(腰俞 或 橫骨)의 雲門과 髃骨은 手와 연결되어 있고, 委中과 髓空은 足과 연결되어 있어 이 8穴은 四肢의 邪熱을 瀉한다<sup>11)</sup>.

《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雲出天氣. …… 天氣通於肺”라 하였고, 《黃帝內經·靈樞·營衛生會》에서는 “上焦如霧”라 하였다. 霧는 雲과 같은 것이다. 肺가 上焦에 있어 氣를 出하는 것이 마치 天의 雲霧와 같다. 雲門穴이 胸部 위쪽에 있어 안으로 肺에 應하여 마치 雲氣의 門戶와 같기 때문에 雲門이라 이름하였다.

肩髃의 髃는 骨의 이름으로 髃라 하기도 한다. 《說文解字·骨部》에서 “髃, 肩前也”라 하였고, 段玉裁의 註에서는 “土喪禮記; 卽床而奠, 當髃. 注曰; 髃, 肩頭也. 髃卽髃字. …… 髃之言隅也, 如物之有隅也”라 하였다. 髃는 어깨 모서리로 이 穴이 肩髃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름하였다.

委中은 《醫經理解·穴名解》에서 “委中은 …… 바로 足膝이 委折하는 가운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여러 解釋에서 대부분 委를 委折, 委屈의 뜻으로 解釋하였는데 그럴 듯하지만 실은 아니다. 委는 물이 흘러 모이는 곳이다. 《禮記·學記》에서 “三王之祭川也, 皆先河而後海, 或源也, 或委也, 此之謂務本”이라 하였는데, 鄭玄의 註에서 “委, 流所聚也”라 하였다. 足太陽



脈이 머리에서 목덜미를 타고 내려와 肩膊 안쪽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뉘고 下行하여 오금 가운데에 이르러 스텝해지는 것이 바로 水脈이 모이는 것과 같다. 이 穴이 오금 가운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委中이라 이름하였다.

《鍼灸甲乙經》에 髓空은 背解와 함께 腰俞의 別名으로 되어 있다. 腰俞穴이 있는 곳이 허리 사이로 脈氣가 轉輪하는 孔竅이기 때문에 腰俞라 이름하였다<sup>12)</sup>.

⑤ 五臟俞傍五, 此十者, 以瀉五臟之熱也. 凡此五十九穴者, 皆熱之左右也

王冰의 註에서 ‘俞傍五’는 魄戶, 神堂, 魂門, 意舍, 志室 다섯 穴로 脊柱를 끼고 양쪽으로 서로 3寸 떨어져 있으며 足太陽의 脈氣가 所發한다 하였다. 魄戶는 第3椎下 양쪽에 있고, 神堂은 第5椎下 양쪽에 있고, 魂門은 第9椎下 양쪽에 있고, 意舍는 第11椎下 양쪽에 있고, 志室은 第14椎下 양쪽에 있다<sup>16)</sup>.

左右의 魄戶, 神堂, 魂門, 意舍, 志室 10穴은 足太陽經의 腧穴이며 五臟은 모두 背部와 연계되어 있어 五臟의 邪熱을 瀉한다<sup>6)</sup>.

魄戶穴은 脊柱를 끼고 곁으로 3寸 떨어져 있으며 第3椎 下傍 1寸 5分에 있는 肺俞穴과 平衡을 이루고 있다. 肺는 魄을 藏하고 이는 魄의 門戶에 해당되기 때문에 魄戶라 이름하였다. 神堂은 第5椎 下傍 3寸에 있고 脊柱를 끼고 곁으로 1寸 5分 떨어진 心俞와 平衡을 이루고 있다. 心은 神을 藏하고 이 穴은 心神의 庭堂에 해당되기 때문에 神堂이라 하였다. 魂門은 第9椎 下傍 3寸에 있고, 9椎 下傍 1寸 5分 떨어져 있는 肝俞와 平衡을 이룬다. 肝은 魂을 藏하고 이 穴은 魂의 門戶에 해당되기 때문에 魂門이라 하였다. 意舍는 第11椎 아래 脊柱를 끼고 1寸 5分 떨어진 脾俞와 平衡을 이룬다. 脾는 意를 藏하고 이 穴이 있는 곳은 意가 舍하고 있기 때문에 意舍라 하였다. 志室은 第14椎 아래 脊柱를 끼고 1寸 5分 떨어져 있는 腎俞와 平衡을 이룬다. 腎은 精과 志를 藏하고 이 穴은 腎志의 居室에 해당되기 때문에 志室이라 한다<sup>12)</sup>.

“凡此五十九穴者, 皆熱之左右也”에서 “左右”는 經過와 같다. 《漢書·樓護傳》<sup>16)</sup>에 “不得左右”라 하였는데 顏師古의 註에 “不相經過也”라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59穴은 모두 熱이 經過하는 곳이기 때문에 刺鍼하여 瀉한다.

#### 4. 《黃帝素問宣明方論》<sup>9)</sup>의 防風通聖散

防風通聖散은 金元四大家의 한 사람인 劉完素가 立方하였다. 劉氏는 火熱病症의 病機에 대해 《黃帝內經·素問》 病機19條를 基礎로 보다 상세하게 分析하고 理論적으로 深化시켜 ‘佛熱鬱結’이 熱證의 주요 病機라는 독특한 見解를 주장하였다. 그는 火熱病의 表裏, 虛實, 眞假를 判別하고 水火, 陰陽, 亢害承制의 理論으로 이들의 發病 機轉과 證候를 解釋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背後를 證明함으로써 당시 醫師들이 寒熱의 眞假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辛燥한 藥을 투여하는 弊端을 改善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著書인 《黃帝素問宣明方論》<sup>9)</sup>의 三券 風門의 <諸風總論>에서 “風寒熱로 생기기 쉬운 여러 疾病이 臟腑에 모두 風을 일으켜 火·熱·陽의 바탕이라 한다. 曲直하고 動搖함도 風의 작용이다. 어지럽고 吐하는 것은 風熱이 甚한 所致이고, 風熱이 佛鬱하여 風이 熱로 인하여 크게 病이 생길 경우 熱이 본이 되고 風이 標가 된다. 즉 風은 風熱病을 말하고 이로 인한 症狀은 氣가 壅滯되고 筋脈이 당기고, 肢體가 말라비틀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뻣뻣하면서 아프고, 귀가 울리고 코가 막히며, 입이 쓰고 혀가 마르고, 咽喉가 不利해지고, 가슴이 걸려 답답하고, 기침과 嘔吐로 숨이 가쁘고, 끈적끈적한 침이 나오고, 腸胃가 燥熱해져 便秘와 小便이 잘 나오지 않게 된다. 혹은 잠을 잘 때에 盜汗이 나고 이를 갈면서 잠꼬대를 하고, 筋이 떨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혹은 腸胃가 佛鬱하여 湧쳐져 水液이 온몸을 적셔 주지 못하나 小便은 많이 나온다. 혹은 濕熱이 속에 鬱滯되어 있지만 때로는 땀이나 泄瀉가 나오며, 津液이 枯渴되어 小便不利하고 혹 腸胃가 말라 鬱滯되어 水液이 바깥으로 運行되지 못해 도리어 濕이 停滯되어 泄瀉를 하며 燥濕이 왕래하여 便秘와 泄瀉를 교대로 한다. 또한 表陽의 正氣와 衛氣가 邪熱과 만나 함께 속으로 들어가 陽極似陰으로 戰慄하고 煩渴症이 나는데 中氣가 寒하여 戰慄하고 內熱이 甚해 渴症이 난다.

혹은 氣虛가 久하여 낮지 않는 것은 《黃帝內經》에서 ‘邪熱과 衛氣가 함께 속으로 들어가면 寒戰한다. 함께 表로 經由하면 發熱하니 서로 합해지면 病이 發作하고 떨어지면 病이 낮는다’고 하였다.

혹은 風熱이 돌아다녀 疼痛과 麻痺가 생기고, 腎水의 眞陰이 虛해져 心火의 邪熱이 甚해지면 卒中으로

전혀 말을 하지 못한다. 또는 暗風으로 癩을 일으키거나 머리를 감다가 頭風이 생기거나 破傷風, 中風 등이 생기기도 한다. 小兒에게는 여러 疳證과 熱이 쌓이게 되는바 驚風과 積熱, 傷寒과 疫癘를 감별해야 한다. 熱이 심하게 쌓여 땀을 내어도 불쾌한 경우, 혹은 熱로 검은 斑疹이 함몰되어 죽는 경우도 있다. 특히 大人과 小兒는 風熱로 인한 瘡疥가 발생하여 잘 낫지 않는다. 頭部의 屑, 全身에 黑斑點이나 紫色斑點이 생기고, 面과 鼻에 紫赤色の 風刺와 癩疹이 생기는데 속칭 肺風이라 한다.

또한 防風通聖散은 風癘가 發生하여 大風이 빠르게 전파되거나, 腸風과 痔漏, 過飲으로 인한 熱毒을 풀어주고, 邪氣에 傷한 것을 解利시킨다. 傷寒을 調理하며 發汗하지 못해 머리와 목덜미가 아픈 것과 兩感으로 인한 여러 症狀을 治療하고 아울러 産後에 血氣이 損傷되고 虛해져 陰氣가 衰해진 것을 治療하고, 다양한 熱證에 따른 腹部脹滿痛과 煩渴, 喘悶, 譫妄, 驚狂을 治癒한다.

혹은 熱이 極해져 風을 生하여 熱燥가 鬱滯되어 舌強, 口噤하고 筋肉이 떨리는 一體의 風熱燥한 證을 다스린다. 鬱滯로 惡物이 내려가지 않아 배가 脹滿하고 꼬집는 것처럼 아파 昏絶하거나, 藥物이 過多하여 吐하는 者는 服用을 禁한다. 아울러 大小瘡과 惡毒을 除去하고 말에서 떨어지거나 打撲으로 인한 疼痛을 治療하고, 熱이 蒙쳐 大小便이 不通하거나 허리와 腹部가 갑자기 아프고 배가 脹滿하여 숨이 가쁜 것을 治療한다<sup>17)</sup>라고 주장하였다.

이상 이러한 病症의 종합적인 病機는 陽氣가 風寒에 막혀 拂鬱하여 熱로 化함으로써 風熱이 壅盛하게 되어 表裏와 三焦가 모두 實하게 된다는 것이다. 表裏上下를 分消시키는 방법을 採用하여 劉完素는 防風을 善用하였기 때문에 防風通聖散이라 이름하였다.

### 1) 處方名

《醫方考·中風門》<sup>18)</sup> ; 防風通聖散, 通聖이라 命名한 것은 그 작용에 神效가 있음을 과장되게 한 말이다.

《方名釋義》<sup>19)</sup> ; 방에 防風을 主藥으로 삼았고 表裏를 함께 풀어 효과가 양호하기 때문에 “防風通聖散”이라 이름하였다.

### 2) 主治

《醫方考·中風門》<sup>18)</sup> ; 風熱壅盛, 表裏三焦皆實者, 此方主之. 《王旭高醫書全集·退思集類方歌注·承氣

湯類》<sup>20)</sup> ; 表裏氣血三焦通治之劑, 汗不傷表, 下不傷裏.

《醫方集解·表裏之劑》<sup>20)</sup> ; 治一切風寒暑濕. …… 表裏三焦俱實. …… 上下分消, 表裏交治, 而能散瀉之中, 猶寓溫養之意. 所以汗不傷表, 下不傷裏也. …… 足太陽陽明表裏氣血藥也.

### 3) 藥物組成

《黃帝素問宣明方論 卷三·風門·諸風總論》<sup>10)</sup> ; 防風, 麻黃 各半兩, 荊芥 一分, 薄荷葉 半兩, 大黃, 芒硝朴硝是者 各半兩, 滑石 三兩, 梔子 一分, 石膏 一兩, 桔梗 一兩, 蓮翹 半兩, 黃芩 一兩, 川芎, 當歸, 白芍藥 各半兩 (7), 白朮 一分, 甘草 二兩

### 4) 方解

#### (1) 防風, 麻黃

防風은 甘, 溫, 無毒하며 足太陽과 겸하여 脾胃 二經으로 歸入하고<sup>22)</sup>, 또 春木의 氣를 稟受하여 入肝하고 治風하며, 味甘은 地中の 土味를 得하여 入脾하고 培土 和肝(木)한다<sup>21)</sup>. 防風은 甘溫하고 發散시켜 온몸을 走行하면서 去風하고 除濕하며 陽位(頭), 皮毛, 空竅, 周身, 關節 등 風에 傷하여 발생하는 惡風, 頭痛과 眩暈, 脊痛項痛, 骨節疼痛 등을 통치하는 效能이 있다. 《神農本草經》에서 “主大風” 三字를 防風主治의 提綱으로 삼았다<sup>21)</sup>.

麻黃은 苦, 溫, 無毒하고 經絡과 榮衛를 總괄하며 足太陽膀胱經과 겸하여 手太陰으로 歸入하고<sup>22)</sup>, 또 氣가 溫한 春氣를 稟受하여 入肝하고, 味苦의 火味를 得하여 入心하며, 心主汗하고 肝主疏泄하여 發汗의 主藥이 된다<sup>21)</sup>. 또 麻黃은 水氣를 끌어올려 皮毛로 두루 순환시키며 皮毛의 風寒과 외부 寒熱의 邪氣로 인하여 中土의 氣가 外達하지 못하여 생기는 癩癬積聚 등의 증상에 心氣를 이끌어 發表하고 出汗하여 風寒을 제거한다<sup>21)</sup>.

防風과 麻黃은 解表藥으로 風熱이 皮毛에 있으면 汗으로 發泄하여 邪氣를 제거한다<sup>18)</sup>.

#### (2) 荊芥, 薄荷

荊芥는 性溫, 味辛, 臭香하며, 氣가 溫한 木氣를 稟受하여 入肝하고, 味辛의 金味를 得하여 入肺하며, 氣가 味보다 勝하여 浮하고 升하며, 風邪가 皮裏膜外에 있어 肌膚灼熱, 頭目昏眩, 咽喉不利, 身背疼痛 등의 증상에 운용하고, 肝經氣分과 겸하여 血分에 歸入하며<sup>22)</sup> 少陽相火, 厥陰風木의 증상에 따라 風邪를 제거하고, 瘀血을 흩어지게 하고, 結氣를 풀어주고, 瘡毒을 삭이

는 효능이 있다. 風病, 血病 및 瘡病을 主治하는 중요 약이다<sup>21,23)</sup>.

薄荷는 性涼하고, 味辛하며, 氣와 味가 薄하여 浮하고 升하며 手太陰과 足厥陰에 入한다. 辛은 發散, 通氣하고, 涼은 清利, 清熱하며 肝氣의 風과 熱이 안으로 침범할 경우 消風散熱시키는 효능이 있다. 머리나 피부의 風熱을 제거하여 頭痛, 頭風, 眼目, 咽喉, 口齒의 諸病, 驚熱, 癩癧, 瘡疥를 치료하는 要藥이다<sup>22,23)</sup>.

荊芥와 薄荷는 清上시키는 藥으로 風熱이 머리에 있으면 鼻로 泄하여 邪氣를 몰아낸다<sup>18)</sup>.

### (3) 大黃, 芒硝

大黃은 氣寒, 味苦, 色黃, 臭香하고 陽明胃府와 大腸으로 歸入하여 陽邪가 內結한 것을 大瀉한다<sup>21)</sup>. 氣味가 苦寒하여 下泄시키는 작용이 있어 주로 瘀血을 풀고 癥瘕, 積聚를 삭이고, 中土를 肅清시키는 약물이다. 留飲宿食이 腸胃에 있는 것을 씻어 내리는 효능이 있고 脾胃의 病을 전담하여 通利收穀, 調中化食하며, 推陳致新시키는 효능으로 五臟을 조화시킨다. 《素問·玉機眞臟論》에서 “五臟者, 皆稟氣于胃, 胃者, 五臟之本也, 胃氣安則五臟亦安”이라 하였다<sup>21)</sup>.

芒硝는 氣寒, 味苦, 無毒하며 腸胃로 歸入하고 峻하여 腎에 入하고, 가장 陰한 性을 가지고 消物하며, 外로는 皮毛를 통하여 寒熱의 邪氣를 제거하고, 胸膈에서 中土로 入하여 天氣가 아래의 地氣와 교류하며, 熱邪가 깊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 막히고 뭉쳐져 풀리지 않는 것을 삭이고 장부에 積聚가 생겨서 단단한 것을 몰아낸다. 《傷寒論》의 大陷胸湯, 大承氣湯, 調胃承氣湯類에 君藥으로 이용되었다<sup>21)</sup>.

大黃과 芒硝는 通利시키는 약으로 風熱이 腸胃에 있으면 大便으로 泄하여 邪熱을 제거한다<sup>18)</sup>.

### (4) 滑石, 梔子

滑石은 氣寒, 味甘, 無毒, 色白하고 足太陽經으로 歸入하며, 清利小便하며 上으로 腠理를 開하여 發表한다. 上·中부의 濕熱을 소변으로 下利하고 中·下부의 濕熱을 제거한다. 上·中·下부의 濕熱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며 三焦와 表裏에 있는 濕熱을 씻어 내리고<sup>22)</sup>, 胃中의 積聚와 寒熱을 몰아내어 中暑積熱, 水熱瀉利, 水腫淋閉 등을 치료한다<sup>21)</sup>.

梔子は 氣寒, 味苦하고 輕飄하여 肺를 상징하고 色赤하여 心으로 들어간다. 心肺의 熱을瀉하여 下行시켜 小便으로 배출하고 三焦의 鬱火를 해소하며 心煩懊憹, 不眠, 目赤腫痛, 消渴煩躁 등을 치료한다. 五臟

의 邪熱, 胃中의 熱氣 등 內熱을 식히고, 上部의 火를 식히며 火熱의 氣를 끌어내려 面赤, 酒齙鼻, 白癩, 赤癩, 瘡瘍을 치료하는 效能이 있다<sup>21,22)</sup>.

滑石과 梔子は 水道藥으로 風熱을 決瀆하여 소변으로 泄하여 邪熱을 제거한다<sup>18)</sup>.

### (5) 石膏, 桔梗

石膏는 氣寒, 味辛, 無毒하고 胃腑에 歸入하고 아울러 脾와 肺에 入한다. 邪氣가 陽明 胃府에 있어 肺로 火가 侵襲할 경우 辛은 發汗解肌하고, 甘은 緩脾益氣, 生津止渴하며, 寒은 清熱降火한다. 足陽明 胃腑의 涼劑, 宣劑로 清胃熱, 解肌發汗하여 日晡熱蒸, 口乾唇燥, 堅痛不解, 神昏譫語, 氣逆喘喘, 溺閉渴飲, 中暑自汗, 胃熱發斑牙痛 등 여러 증상을 치료하는 효능을 갖추고 있다. 《傷寒論》의 白虎湯은 石膏, 知母, 甘草, 粳米로 구성되어 있어 陽明胃腑의 津液을 潤澤하게 陽明의 熱을 清肅한다<sup>21,22)</sup>.

桔梗은 氣味溫, 味辛, 有小毒하고, 辛散, 溫行하는 氣分の 약으로 肺의 風寒을 제거하여 肺氣를 열어주고 清氣를 상승시키고 濁氣를 하강시켜 利胸膈한다. 寒이 鬱滯되어 나타나는 目赤, 喉痛, 咽痛과 上焦의 胸痛, 脇痛 및 肺火가 轉移하여 大腸에 鬱滯되어 나타나는 中焦의 腹滿腸鳴, 下焦의 下痢腹痛 등을 다스리고 寒이 肺의 竅道를 閉塞하는 上·中·下部의 증상을 치료한다<sup>21,22)</sup>.

石膏와 桔梗은 風溼이 胸膈에 있으면 清肺瀉胃하여 邪熱을 제거한다<sup>18)</sup>.

### (6) 蓮翹, 黃芩

連翹는 氣平, 未苦, 無毒하고 性질이 輕浮하고 形象이 心腎과 유사하여 心經의 熱邪를 제거하고 六經의 鬱火를瀉한다. 諸痛瘡瘍은 心火에 속하며, 腎臟의 濕熱이 血脈에 留滯한 鼠瘦와 外寒으로 經脈이 傷하여 발생하는 癩癧 등을 治療한다. 連翹는 味苦하고 방향성을 가진 氣로 經脈을 通하게 하여 氣聚와 血凝을 흩어지게 하는 要藥이다<sup>21,22)</sup>.

黃芩은 氣寒, 味苦, 無毒하고 手足陽明과 手太陰으로 歸經한다. 肺氣는 內行外達하고 黃芩은 肺火를瀉하여 肺氣를 通調하며 腸胃와 肌表의 熱을 清熱한다. 上·中 二焦의 濕熱을 제거하기 때문에 黃疸, 腸澼 등의 증상을 치료하고, 火熱의 氣가 肌肉과 皮膚에 머물러 발생하는 癰疽瘡瘍을 치유한다<sup>21,22)</sup>.

連翹와 黃芩은 諸經에 游火하는 邪氣를 제거한다<sup>18)</sup>.

(7) 川芎, 當歸, 白芍藥

川芎은 氣溫, 味辛하고 升浮하며, 肝으로 歸經하고 膽과 心包로 아울러 入하며 血分 중 氣藥이다. 肝에 風鬱 즉 寒濕이 內迫하면 血滯하여 不行하고, 熱濕이 內迫하면 血急해져 나타나는 腹痛, 脇痛, 血痢, 癰疽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川芎은 陽明金氣를 稟受하여 그 氣化작용이 肌肉에서 皮膚로 달하며 寒痺, 筋攣 등의 症狀을 다스린다<sup>21,22)</sup>.

當歸는 氣溫, 味苦, 無毒하다. 氣溫하고 木氣를 稟受하여 肝으로 入하고, 味苦의 火를 得하여 心으로 入한다. 肝藏血하고 心主血한다. 當歸는 肝에 入하여 養血하고, 心에 入하여 淸火하며, 血滯를 通하게 하고, 血을 生하는 血中氣藥으로 陰虛하여 陽이 따르지 못하는 모든 血證 즉 血枯, 血燥, 血閉, 血脫 등의 症狀에 응용한다<sup>21,22)</sup>.

白芍藥은 氣平, 味苦, 無毒하다. 厥陰木氣를 稟하여 肝을 다스리고, 少陰火氣를 稟受하여 心을 다스린다. 斂氣로 肝液을 收斂하여 氣가 妄行하지 못하게 하는 肝經 血분에 작용하는 藥物이다. 氣味が 苦平하여 風木이 中土를 傷하여 發生하는 腹痛, 小便不利 및 일체 痛症을 수반하는 氣滯病을 主治하고, 疝瘕, 滿痛 등 血滯의 病을 行氣시켜 治療한다<sup>21,22)</sup>.

風熱 疾患은 肝木에 病이 들어 發生하는 것으로 川芎, 當歸, 白芍藥으로 肝血을 조절한다<sup>18)</sup>.

(8) 白朮, 甘草

白朮은 氣溫, 味甘하다. 脂와 液의 성질이 많고 脾土를 조화시키는 藥이다. 氣가 매우 溫하여 健脾消食하고, 脾臟의 氣를 補하는 첫 번째 藥으로 脾濕을 燥하게 하는 效能이 있다. 味甘, 性溫은 脾土를 補益하고 土氣를 運行하여 밖으로는 皮膚로 通하게 하고, 안으로는 經脈을 通하게 하는 作備으로 風寒濕을 제거함으로써 痺症을 治療한다<sup>21,22)</sup>.

甘草는 氣平, 味甘, 無毒하여 氣味が 甘平하다. 肝主筋, 腎主骨하니 筋骨을 튼튼케 하고, 脾主肉하니 肌肉을 기르며, 肺主氣, 心主力하니 氣力을 倍加시켜 五臟이 충족되고 六腑가 자연 화합되니 五臟六腑를 조화시킨다. 五臟은 陰이고 六腑는 陽이며, 寒은 陰이고 熱은 陽으로 臟腑陰陽의 正氣를 貫통시켜 다스린다<sup>21,22)</sup>.

白朮, 甘草는 胃氣를 조화롭게 하고 健脾시킨다<sup>18)</sup>.

5. 熱病五十九俞와 防風通聖散의 主治 效能 비교

1) 頭頂의 다섯 經에 配穴된 25穴과 防風, 麻黃, 荊芥 및 薄荷의 效能 비교

熱病五十九俞에서 頭頂의 다섯 經에 배치된 25穴은 三陽經의 表部가 鬱滯되어 頭部에 發熱이 나타나는 症狀과 手足三陽經의 熱이 頭顛으로 厥逆하는 症狀이 있을 경우 刺鍼하여 邪熱을 흩어지게 하는 效能이 있다. 督脈의 다섯 穴, 膀胱經의 좌우 10穴, 膽經의 좌우 10穴 즉 25穴은 熱病이나 邪熱로 인하여 頭, 目, 咽喉, 鼻 등 五官과 項背에 發현되는 症狀을 主治한다.

防風通聖散의 藥物 組成에서 防風은 足太陽과 脾胃經으로 歸入하고, 麻黃은 足太陽과 手太陰으로 歸入하는 解表藥이다. 防風과 麻黃은 風熱이 皮毛에 있으면 汗으로 發泄하여 邪熱을 없애고, 荊芥는 肝經의 氣分과 血분에 歸入하여 少陽相火와 厥陰風木의 盛衰로 나타나는 症狀을 主治하고, 薄荷는 手太陰과 足厥陰에 歸入하여 淸上시킨다. 風熱이 顛頂에 있으면 荊芥와 薄荷로 鼻를 通하여 風熱을 泄하여 邪氣를 제거한다.

頭頂의 다섯 經에 配穴된 25穴이 “여러 陽經의 熱이 上逆한 것을 흩어지게 하는(越諸陽之熱逆也)” 效能에 있는 것과 防風, 麻黃, 荊芥, 薄荷의 輕浮한 性質이 上部를 解表시켜 風寒을 땀으로 邪氣를 흩어지게 하는 效能은 類似하다.

2) 氣街, 三里, 巨虛上廉 및 巨虛下廉穴과 大黃, 芒硝, 滑石 및 梔子の 效能 비교

熱病五十九俞에서 氣街, 三里, 巨虛上廉, 巨虛下廉 4穴은 足陽明經에 속하며 足三里는 胃, 巨虛下廉은 小腸, 巨虛上廉은 大腸, 氣街는 腹中の 熱로 인한 水液 代謝障礙의 증상 등을 主治하는 效能이 있어 “이 여덟 穴은 胃속의 熱을 瀉한다(此八者, 以瀉胃中之熱)” 고 하였다.

防風通聖散의 藥物組成 가운데 大黃은 陽明胃府와 大腸으로 歸入되어 陽邪가 속에서 뭉쳐진 것을 내려서 풀고, 芒硝는 腸, 胃로 歸入하여 熱邪가 깊고 단단하게 자리 잡아 막히고 뭉쳐져 풀리지 않는 것을 깎아 내리고, 滑石은 足太陽經으로 歸入하여 小便을 淸利시키는 기능이 있어 上, 中, 下部의 濕熱을 제거하며, 梔子는 心肺의 熱을 식혀 내려 小便으로 排出하고 三焦의 鬱火를 해소시킨다.

胃中の 熱을 瀉하는 氣街, 三里, 巨虛上廉, 巨虛下廉의 穴性에 따른 鍼處方과 防風通聖散에서 大黃, 芒硝가 破結하고 通幽시키고 梔子, 滑石이 降火利水하여 風熱을 大小便으로 배설하여 腸胃를 씻어 내리는 效能은 서로 類似하다.

### 3) 大杼, 膺俞, 缺盆 및 背俞穴과 石膏과 桔梗의 效能 비교

熱病五十九俞 가운데 大杼, 膺俞, 缺盆, 背俞穴은 胸部와 背部에 배치되어 있어 胸中の 邪熱을 瀉하는 效能이 있다.

防風通聖散에서 石膏는 脾胃와 肺에 歸入하고 足陽明과 胃腑의 熱을 식히고 解肌하고 發汗시키는 效能이 있으며, 桔梗은 肺에 침입한 風寒을 몰아내어 肺氣를 열어주고 胸膈을 부드럽게 한다<sup>21,22</sup>.

胸中の 熱을 瀉하는 鍼處方인 大杼, 膺俞, 缺盆, 背俞의 效能과 石膏, 桔梗이 風溼이 胸膈에 있으면 淸肺瀉胃하여 邪熱을 몰아내는 效能은 서로 類似하다<sup>18</sup>.

### 4) 雲門, 髃骨, 委中 및 髓空穴과 連翹와 黃芩의 效能 비교

熱病五十九俞에서 雲門, 髃骨(肩髃)은 팔과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팔의 邪熱을 瀉하고, 委中, 髓空(腰俞 혹은 橫骨)은 다리와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다리의 邪熱을 瀉한다. 네 穴은 四肢의 邪熱을 몰아내는 效能이 있다.

防風通聖散에서 連翹는 心經의 熱邪를 제거하고, 六經의 鬱火를 瀉하며, 經脈을 通하게 하여 氣聚하고 血凝된 것을 풀어지게 한다. 黃芩은 肺火를 瀉하여 肺氣를 通調시키고 腸胃와 肌表의 熱을 식혀준다. 連翹와 黃芩은 諸經에 돌아다니는 火를 끈다.

四肢의 熱을 瀉하는 鍼處方인 雲門, 髃骨, 委中, 髓空의 效能과 諸經에 돌아다니는 火를 끄는 連翹, 黃芩의 效能은 서로 類似하다<sup>18</sup>.

### 5) 魄戶, 神堂, 魂門, 意舍 및 志室穴과 川芎, 當歸, 白芍藥, 白朮 및 甘草의 效能 비교

熱病五十九刺에서 “五臟俞傍五”는 王冰의 主에 의하면 背部 足太陽經의 第二行에 배열된 魄戶, 神堂, 魂門, 意舍 및 志室穴를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素問·刺熱論》에서 熱病氣穴에 관하여 “三椎下間主胸中熱, 四椎下間主膈中熱, 五椎下間主肝熱, 六椎下間主

脾熱, 七椎下間主腎熱”이라고 하여 五臟熱의 治療穴로 脊柱 사이의 督脈經에 있는 身柱, 神道, 筋縮, 脊中, 命門穴도 言及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穴들이 모두 五臟熱을 瀉하는 作用이 있지만《水熱穴論》의 五臟熱을 瀉하는 五十九腧로서 “五臟腧傍五”는 王冰의 註를 따른 魄戶, 神堂, 魂門, 意舍 및 志室穴이 가장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血은 心火에 의하여 化生되고(心主血) 아래로 肝에 藏하며(肝藏血), 氣는 腎水에서 化生하고(腎主水) 위로는 肺가 주관하며(肺主氣) 氣血 사이의 상하 運行은 脾가 통괄한다(脾統血)<sup>26</sup>. 風病은 本은 熱이고 標는 풍으로 肝木의 病이다. 川芎, 當歸, 白芍藥은 行血, 養血, 淸血하고 和血補肝하는 效能이 있어 《鍼方六集·傍通集》<sup>9</sup>에서 “熱傷于血, 陰臟失榮, 川芎, 歸芍, 益陰血也”라 하였다.

五臟의 邪熱을 瀉하는 背部 俞穴은 熱이 血을 動하게 하는 것을 調治하는 것과 川芎, 當歸, 白芍藥으로 行血, 養血, 淸血하여 和血補肝하는 效能은 서로 類似하다<sup>18</sup>.

## III. 考 察

《黃帝內經》이 成書된 것은 秦漢시대 鍼灸理論과 經驗을 爲主로 成篇되었고 藥物에 관한 것은 몇몇 篇에서만 언급되어 있다. 《黃帝內經·素問·異法方宜論》에는 鍼, 毒藥, 砭石, 導引按蹻 및 灸 등의 기원 문제를 언급하여 五行論적인 지역 특성에 따라 治療手段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내었다<sup>25</sup>. 後漢시기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이 출현함에 따라 湯液을 주체로 삼은 藥物療法이 구축되었다. 이는 《黃帝內經》의 영향을 받고 脈診法에 基礎하여 藥物療法 중심으로 再編成함으로써 단순한 경험적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후 鍼과 藥物은 韓醫學의 치료수단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두 분야는 역사적으로 각기 발전하여 鍼灸療法과 藥物治療 사이의 理論적인 相關性이나 治療의 융합성에 관하여 역대 醫家들의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鍼灸의 適用範圍가 점차 萎縮되는 傾向에 직면하여 《醫方集解》의 母體가 된 《醫方考》와 《黃帝內經·素問》을 主席한 《黃帝內經素問吳注》의 著者인 明代 吳崑은 藥物療法과 鍼灸治療의 統攝을 시도하여

《鍼方六集·旁通集》에서 鍼과 藥의 同一성과 相異성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그 理論的인 바탕이 틀이 아님을 論證하였다.

따라서 《黃帝素問宣明方論 卷三·風門·諸風總論》에 기재되어 있는 風熱의 通治方인 防風通聖散과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의 熱病五十九俞<sup>25)</sup>를 비교 考察함으로써 藥物方劑와 鍼灸治療의 統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旁通集>에서 ‘刺熱論曰’이라고 引用한 “頭上五行行五者, 以越諸陽之熱逆也; 大杼, 膺俞, 缺盆, 風門, 此八者以瀉胸中之熱也. 氣衝, 三里, 巨虛上下廉, 此八者以瀉胃中之熱也. 雲門, 髃骨, 委中, 髓空, 此八者以瀉四肢之熱也. 五臟俞傍五, 此十者以瀉五臟之熱也. 凡此五十九穴者, 皆熱之左右也”는 《黃帝內經·素問》의 <刺熱論>이 아니라 <水熱穴論>의 내용이다. <刺熱論>은 주로 五臟熱病의 刺鍼法에 대해 重點的으로 다루었으며 “病甚爲五十九刺”라고 하여 病이 甚하면 五十九刺法을 사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五十九刺法은 王冰의 主에 의하면 <水熱穴論>의 五十九腧法을 말한다. 吳昆은 《黃帝內經·靈樞·熱論》의 五十九刺와 <水熱穴論>의 五十九腧의 穴자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던지, 아니면 <水熱穴論>의 五十九腧가 解表, 清熱 및 功下의 效能을 모두 갖고 있는 防風通聖散과 理論的 相關性이 더 깊다고 판단하여 <水熱穴論>을 택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黃帝內經·靈樞·熱論》의 五十九刺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의 본론에서 ‘59腧’, ‘59瘡’, ‘59刺’의 기록을 살펴 본바 여기서의 ‘腧穴’은 體表와 經絡, 臟腑相通의 點이고 脈氣 所發의 空隙이며 일반적 鍼灸治療點의 通稱으로 ‘氣穴’ ‘輸穴’ ‘孔穴’ 등의 의미와 類似하다 하겠다. ‘瘡’는 癍痕의 뜻이며 예컨대 鍼癍, 鍼孔 등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鍼刺 할 穴位를 뜻한다. 《黃帝內經·素問·繆刺論》에서는 “刺手中指次指爪甲上, 去端如韭葉, 名一瘡”라 하여 藥指를 刺鍼할 때 指甲에서 부추잎 너비만큼 떨어진 곳에 一回 刺鍼한다는 鍼刺 횟수를 나타내기도 했다. ‘刺’ 또한 鍼으로써 人體의 體表部位를 刺戟하여 治療目的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腧’ ‘瘡’ ‘刺’는 字만 달리 하였고, 59穴의 穴位에서 차이가 있지만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볼 수 있다. 또 《黃帝內經·靈樞·熱病》에는 ‘瘡’가 ‘刺’와 함께 사용 되었고, 《黃帝內經·靈樞·四時氣》에서 사용된 ‘59瘡’라는 표현도 《黃帝內經·靈樞·熱病篇》의 五十九刺와 同一한 意味로 사료된다. 따라서 《黃帝內經·素問》에서 五十九刺法을 用하라고 했을 때

는 통칭 <水熱穴論>의 五十九腧法으로 생각할 수 있다.

《類經·卷二十一》에는 <水熱穴論>의 五十九腧와 <熱論>의 五十九刺의 穴位 중에서 同一한 것은 頭頂部의 百會와 顛會 각 一穴과 頭部의 中央線 양쪽에 있는 五處, 承光, 通天, 臨泣, 目窓, 正營, 承靈, 腦空으로 모두 18개 穴位뿐이며 나머지 41개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熱病篇>에서 제시한 59개의 穴은 四肢에 偏重되어 있어 本病을 治療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水熱穴論>에 제시한 59개의 穴은 病邪가 局部에 偏중되어 있어 表病을 治療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兩者의 특징을 잘 運用하면 標本兼治의 目標을 달성 할 수 있다.

熱病은 陽에 해당하고 手足三陽經脈이 모두 頭部를 行하므로 頭部에 있는 穴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督脈 또한 陽脈之海로 任脈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黃帝內經·靈樞·熱病》의 五十九刺 중 四肢에 사용된 穴자리들을 보면 井穴이 12개이고 腧穴이 14개이며 榮穴은 1개 사용되었다. 《黃帝內經·靈樞》에는 榮穴이 “病變于色者 取之榮 榮主身熱 心火病也”라고 하여 瘡疾에서 오는 發熱, 內傷發熱, 外感發熱뿐 아니라 脫水로 인한 發熱까지도 效果가 특별하다고 하였는데 <熱病> 五十九刺에서는 井穴과 腧穴이 많이 사용 된 점이 의문이다.

防風通聖散은 火熱論을 주장한 劉河間이 創方<sup>21)</sup>한 것으로, 六氣의 邪氣가 人體에 侵入하여 火熱化하는 病理的인 현상을 治療하기 위해 火熱이 발현되는 部位를 上·中·下焦로 구분하였고, 각 藥物의 歸經에 따라 上焦 — 心·肺·中焦 — 肝·膽·脾·胃·下焦 — 膀胱·小腸·大腸·腎에 대응시켜 邪氣가 熱로 化하여 表裏가 모두 實해진 것을 清和시킨다<sup>27)</sup>.

熱病에 관한 刺法은 《黃帝內經·素問》의 <熱論>과 <刺熱論>에서 볼 수 있는데, <熱論>에 “其未滿三日者, 可汗而已; 其滿三日者, 可泄而已”라는 治療原則을 제시하였고, <刺熱論>에서는 五臟熱의 症狀를 記述하고 椎下間을 刺鍼하여 治療한다고 하였고, 또한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과 《黃帝內經·靈樞·熱病》 등에서는 治熱五十九刺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熱病이 甚하면 이용하는 專門的인 刺法이다<sup>28)</sup>.

59穴로 發熱疾患을 治療하는 理論的인 근거는 寒에 侵犯되면 氣가 不通하고 寒極하면 熱하는데, 發熱이 나타나는 部位를 지나는 經脈을 疏通시켜 解熱시키고<sup>3)</sup>, 防風通聖散은 上·中·下焦와 表裏에 侵犯한 火熱의 邪氣를 상응하는 藥物의 歸經과 性味를 이용

하여 몰아낸다.

防風通聖散과 熱病五十九俞의 主治效能을 비교하면, 頭頂의 다섯 經脈에 배열된 25穴이 ‘越諸陽之熱逆’하는 효능과 防風, 麻黃, 荊芥, 薄荷의 輕浮한 藥性으로 上部를 解表시켜 風寒을 땀으로 흩어지게<sup>24)</sup> 하는 效能이 상응하고, 氣街, 三里, 巨虛上廉 및 巨虛下廉 4穴이 胃中の 熱을 瀉하여 調胃補脾하는 效能과 大黃, 芒硝가 破結通幽하고 梔子, 滑石이 降火利水하여 風熱을 大小便으로 排泄하고 甘草, 白朮이 脾胃를 調화시키는 效能은 서로 相應한다.

胸背部에 위치한 大杼·膺俞·缺盆·背俞穴이 胸中の 邪熱을 瀉하는 효능과 風溼이 胸膈에 있을 경우 石膏·桔梗으로 淸肺瀉胃하여 胸膈을 淸하게 하는 效能이 相應하고, 雲門·髃骨(肩髃)·委中·髓空(腰俞 或 橫骨)穴은 手足과 연결되어 四肢의 邪熱을 瀉하는 것이 連翹·黃芩이 諸經에 돌아다니는 火의 邪氣를 몰아내는 效能은 서로 相應한다고 볼 수 있다.

魄戶·神堂·魂門·意舍 및 志室穴을 刺鍼하여 五臟의 熱을 瀉하는데, 이는 熱이 血을 動하게 하는 것을 調治한다. 風病은 肝木의 病으로 川芎·當歸·白芍藥이 行血·養血·淸血하여 和血補肝한다. 背部에는 五臟의 위치와 近접한 곳에 五臟腧穴이 위치하고 五臟腧穴은 五臟病의 여러 疾患에 응용되는데 熱病에는 五臟背腧穴이 아닌 魄戶·神堂·魂門·意舍 및 志室穴을 사용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鍼方六集》에서는 鍼과 藥의 理論的인 相關性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여 鍼術의 技法과 治法에 대해 藥物의 治則과 比較論의으로 記述하였다. 특히 <旁通集>에서는 鍼法과 藥物療法의 相對的인 連繫性에 대해 探索하여 鍼과 藥의 檢용에 따른 새로운 지평을 전개시켰다.

오늘날 鍼灸治療의 臨床的 側面에서 鍼과 藥物을 併用하는데 귀중한 理論的인 土臺를 마련하였고, 鍼灸學의 應用範圍를 擴大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향후 臨床에서 鍼과 藥을 併用하여 임상적인 治療效果를 제고시키기 위해 鍼과 藥物의 理論的인 同質性과 異質性에 關於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思料된다.

#### IV. 結 論

《黃帝內經》에서 熱病의 治療穴로 제시된《黃帝內

經·靈樞·熱病》五十九刺와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의 五十九俞의 位置와 主治를 분석하고 熱病治療의 대표적 處方인 《黃帝素問宣明方論》 防風通聖散과의 理論的인 상관성에 關於하여 연구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黃帝內經》에는 熱病을 治療하는 方法으로 《黃帝內經·靈樞·熱病》에 五十九刺와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에 五十九俞의 각기 다른 穴位들을 포함하는 두 가지 鍼處方이 제시되어 있으며, 吳崑은 <水熱穴論>의 五十九俞와 防風通聖散과의 相關性을 論하였다.
2. 《黃帝內經·靈樞·熱病》 五十九刺와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의 五十九俞의 穴位는 18개 穴位만 同一하였으며, 《黃帝內經·靈樞·熱病》에서는 頭部와 四肢部의 穴들만 사용된 반면 <水熱穴論>에서는 頭部, 胸腹部, 背部 및 四肢部의 穴들이 골고루 사용되었다.
3. 《黃帝內經·靈樞·熱病》 五十九刺와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의 五十九俞에서 사용된 經穴은 督脈과 手足三陽經의 穴이 모두 5穴과 45穴로 2穴과 8穴 사용된 任脈과 手足三陰經보다 顯저하게 많이 사용되었다.
4. 《黃帝內經·靈樞·熱病》 五十九刺와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의 五十九俞 中 頭部와 四肢部의 經穴들만 使用한 《黃帝內經·靈樞·熱病》에 比하여 頭部, 胸腹部, 背部 및 四肢部의 穴들이 高루 사용된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의 五十九俞가 解表, 淸熱 및 攻下의 效能을 모두 갖고 있는 防風通聖散과 理論的 동질성을 나타내었다.
5. 防風通聖散의 藥物과 五十九俞의 穴位와의 相合關係는 頭頂의 穴은 解表하는 藥物과 相合하고, 胃中の 熱을 瀉하는 下肢의 穴은 大小便을 소통시키는 藥物과 相合하고, 胸中の 熱을 瀉하는 胸背部의 穴은 胸膈을 圓滑하게 하는 藥物과 相合하고, 四肢의 熱을 瀉하는 穴은 火氣를 몰아내는 藥物과 相合하며, 五臟의 熱을 瀉하는 背部의 穴은 和血補肝하는 藥物과 서로 類似한 關係를 나타낸다.

《黃帝內經·素問·水熱穴論》 “熱病五十九俞”의 鍼灸處方과 《黃帝素問宣明方論》 防風通聖散의 藥物處方に 따른 主治效能의 比較를 통하여 양자 사이에 理

論的으로 相通하는 점이 있으며 鍼灸學의 適用範圍를 擴大시키는데 寄與할 것으로 사료된다.

## VI. 參考文獻

1. 葉發正. 傷寒學術史. 武昌 :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 9-14, 90-130.
2.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 94-102.
3.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7 : 443-9.
4. 傅貞豪 외 9명. 黃帝內經素問析義. 銀川 : 寧夏人民衛生出版社. 1997 : 478-92.
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証發微.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9 : 214-21.
6. 張隱庵.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 學苑出版社. 2002 : 293-94.
7.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素問懸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237-9.
8. 丁光迪. 金元醫學平析.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2000 : 17-8.
9. 吳昆 著. 施士生 校釋. 鍼方六集校釋. 北京 :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 288-9.
10. 劉守貞. 河澗醫集·黃帝素問宣明方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8 : 230-9.
11.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1992.
12. 張燦理. 徐國任 主編. 鍼灸甲乙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8 : 468-71.
13.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 186-94.
14.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 成輔社. 1980 : 449-54.
15.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 學苑出版社. 2001 : 148-52.
16.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下冊. 人民衛生出版社. 1995 : 741.
17.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上.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 : 58.
18. 吳昆. 醫方考.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 9-10.
19. 洪文旭, 蘇禮. 方名釋義. 北京 :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 67-8.
20. 王旭高. 王旭古醫書全集·退思集類方歌注. 北京 : 學苑出版社. 2001 : 193.
21. 仲昂庭. 本草崇原集說.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7 : 36-7.
22. 黃宮繡. 本草求真.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 104-5.
23.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6 : 168-71.
24. 吳儀洛. 成方切用.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6 : 146-7.
25. 吳崑. 內經素問吳注. 山東 :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4 : 56-7, 138-42.
26. 唐容川. 血證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1-6.
27. 劉河間. 劉河間傷寒三書. 서울 : 成輔社. 1976 : 43-44, 302-3.
28.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6 : 94, 166.